

특집 논문

북한의 독일 문학 번역

: 쉴러의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

최윤영 (서울대)

국문요약

이 논문은 연구의 불모지라 할 북한의 독일 문학 수용상황을 살펴봄에 있어 번역, 특히 프리드리히 쉴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 Wilhelm Tell」의 번역양상에 집중하였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네 차례, 해방 이후 남한에서 서른두 차례, 북한에서 최소 세 차례 이상 번역되어 공식적,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우선 북한의 세계문학과 외국문학, 번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후 쉴러와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남북한에서 각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빌헬름 텔」 세 번역본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 비평을 하였는데 이때 남한과 북한의 번역본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북한의 번역본을 살펴봄에 있어 문학 및 번역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 또한 살펴본다. 실제로 북한의 문학 이론과 이를 반영하는 번역본의 서문과 후문들은 정치적, 이념적, 교조적 색채가 강하지만, 고전을 실제로 번역했을 때 번역본은 이러한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특히 완역을 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세계문학'과 '고전문학'이 지니는 일 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번역론과 실제 번역 사이에 간극 혹은 균열이 있음을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179>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평화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2S1A5C2A02093427)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세계문학'이라는 공통의 독서 경험을 매개로 체제를 넘어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제어: 빌헬름 텔, 북한의 문학 번역, 번역비평, 세계문학

I. 서론

북한의 외국 문학과 수용이라는 큰 주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아직 연구의 불모지이다. 북한에서 인문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운데 외국 문학의 수용, 특히 연구와 교육, 그리고 번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체계적으로나 본격적으로 혹은 소상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중의 일부분인 독일 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달리 북한은 세계의 독어독문학자대회(IVG)나 아시아독문학자대회(AGT) 등을 통한 국제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식의 연구 논문 「북한의 독문학」 연구」는 상당히 드문 연구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거나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 연구는 나온 바가 없다.¹⁾ 그밖에 관점을 달리하여 북한에서 나온 '세계문학선집'의 발행상황을 살펴보는 오무라 마스오의 논문 「북한의 문학선집출판현황」은 이러한 세계문학선집 발행 현황 속에서 독일 문학이 같이 번역되고 수용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²⁾

1)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제20호 (2007), 115~137쪽.

2) 오무라 마스오, 「북한의 문학선집출판현황」 『윤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1), 361~363쪽.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문학 연구와 수용에 있어서는 체제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식은 번역상황과 관련해 남한에서는 소위 '시장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우 '사상'이 전체 사회를 추동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번역양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요약한다.³⁾ 구동독이나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북한에도 시대마다 통일된 문학 강령이 존재하며 외국 문학이나 세계문학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1975년에 나온 『외국문학사』의 머리말 제목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외국문학사연구의 유일한 지도적 및 방법론적 지침'이듯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문학 및 문화 이해의 전반적 이론 토대를 이루고 있다. 김태섭이 쓴 2017년의 짧은 논문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는 북한의 외국문학 수용에 대한 전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⁴⁾ 이에 따르면 1950년에 소련에 관심이 집중되다가 60년대에는 유럽 고전에게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고 70년대에는 각 나라의 문학사가 출간되며 『도이첼란트문학사』도 출간이 되었다고 한다.⁵⁾ 2018년에 나온 김철민의 글은 김정일의 글 중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구라파의 진보적 량만주의문학을 올바로 이해할 데 대하여>를 인용하고 있는데, 글의 내용이 이미 제목으로 집약되어 있으며 또한 매우 교조적인 어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주체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한다>에서는 계급적 해방이나 새 사

3)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24쪽.

4) 김태섭,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2017. 9. 1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주제 111, 제68권 제 1호 (2022), 쪽수 명기 없음.

5) 이 문학사는 문학사를 바라보는 북한 문학계 내지는 북한 독문학계의 현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특히 문학사조를 분류하는 시각을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이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이 안타깝다.

회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 착취사회에서의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준 작품들을 선별해서 해석하고 있고, 이때 “당성”, “노동계 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학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은 자국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자국 문학의 목적과 사명을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로 보거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보듯 계급투쟁과 이에 기초한 역사발전과 인민의 승리와 사회주의 문학이라는 목표점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수한 문학관을 여실히 드러낸다.⁶⁾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의 문학관은 이러한 사회주의 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문학으로서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보여주며 김정일 체제 이후 경직된 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문학사』의 출간 이래 40여 년이 흐른 후 나온, 2017년에 김태섭이 쓴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에서는 김정일 선집을 인용하여 외국 문학 수용의 본질, 의미와 목표를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다루고 있다. 외국 문학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좋은 것은 허심하게 배울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체 철학’이라는 북한의 특수성과 동시에 외국문학을 대하는 타자성의 보편성과 일반성이 드러난다.⁷⁾ 마찬가지로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혁명적 세계관”을 들어 북한 문학관의 특수성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이어

6) 1975년에 나온 『외국문학사』의 머리말에서는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과학적 세계관,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문학관이 잘 드러나 있다. 세계문학도 자국 문학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을 담고 있고 특히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발전해온 세계문학의 발전사는 이러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반영”을 해 온 역사로 보고 있다. 『외국문학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 2쪽.

7) 김태섭,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 총 5쪽 중 1쪽.

지는 외국 문학 연구의 목적에서는 다음처럼 외국 문학과 민족 문학 간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도 드러낸다: “외국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또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데 일정하게 참고하며 사람들에게 대한 문화 정서교양에 리용하자는 것이며 대외사업에 필요한 지식도 얻기 위해서이다.”⁸⁾

외국문학번역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에서 2008년에 나온 교재인 『외국문학번역』의 제 1장인 「외국문학번역에 대한 일반적리해」에서는 번역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번역도 어떤 민족어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다른 민족어로 고쳐서 옮기는 예술창작활동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번역된 외국문학작품과 같은 미학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형상성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번역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원작의 예술적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데 바로 문학번역의 본질이 있다. 문학번역은 그 번역에서 정확성과 함께 형상성을 필수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창작을 요하는 지적활동이며 그것으로 하여 다른 번역과 뚜렷이 구별된다.⁹⁾

문학 번역에 대한 기본 정의나 번역문학작품을 예술작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형상을 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 그리고 그 번역작품이 독자에게 미학적 정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번역 이론과 거의 차이가 없다. 물론 이러한 예술적 미적 측면을 ‘형상성’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함은 다르다. 최근에 번역 이론의 세계적 추세가 번역자와 번역본의 위상을 원작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원작에 대한 ‘충실성’보다 원작과의 ‘차이’, 번역본들간의 ‘차이’를 보다 강조하며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말이다.¹⁰⁾

8) 위의 글, 같은 쪽.

9) 『외국문학번역(로문)』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08), 3쪽.

이와 같은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오무라 마스오와 김경식은 흥미로운 관찰과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선입견들”, 예를 들어 북한을 봉쇄적이고 문화적 고도처럼 말하는 “고도설(孤島說)”과 같은 선입견, 또는 사회주의 문학 일색으로 수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바로 이러한 세계문학이나 외국문학이라는 것이다.¹¹⁾ 자국과 타국 문학의 교류와 이해에 기초한 ‘세계문학’에 대한 인식은 - 최근의 다양한 시각의 많은 비판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¹²⁾ 대표적으로 괴테의 고전적인 ‘세계문학’ 구상은 열린 세계주의나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세계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민족문학의 닫힌 태도를 뛰어넘어 문화의 교류 속에서 민족문학을 더 고양시키려는 노력과 결부되어 있다면, 본고에서는 더 나아가 이 같은 공통적 기반은 남북한 소통의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또한 이제까지 행해지지 않았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번역비평을 통하여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김경식의 지적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학이 가진 고유하고 본래적인 가능성, 즉 문학이 구체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속성 때문에 남북한의 공통적 이해와 소통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10) 신수송, 윤미애, 최윤영, 최성만, 「문화수용과 문화전이로서의 번역: 괴테, 카프카,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어 번역 연구」 『독일언어문학』 제 18호 (2002), 259~299쪽.

11) 오무라, 「북한의 문학선집출판현황」, 360쪽;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18쪽.

12) 세계문학 개념 자체에는 최근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문화를 둘러싼 권력의 불균형이나 신자유주의화, 자본주의의 문화자본 논의,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의 관계, 혹은 서양에 대한 전망이나 이국주의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은정, 「세계문학과 문학적 세계 1」 『세계문학』 제 55집 (2016), 5~38쪽 참조.

그와 같은 본질적 속성 덕분에 문학은 각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 논리 및 목소리에 내재하는 동일화 경향에서 벗어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데, 바로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의 진정한 상호소통과 대화의 싹들이 발견될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¹³⁾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세계문학선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 세계문학의 구성은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현대에 들어올수록 사회주의 국가의 작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 고전문학작품의 경우 상당 부분 남한의 고전문학 목록과 중복된다. 세계문학선집을 기획했다는 사실 자체가 폐쇄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다소 수정해주는 데 남한과 중복되는 선정목록은 더욱 그러하다.

-1960~67: 『세계문학선집』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80년대: 『세계문학작품선집』 교육도서출판사

-1986: 『세계문학선집』 문예출판사

1960년대에 발간된 전체 목록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선집에 독일 작가로는 실러(『실러 희곡선』), 하이네(『하이네 시선』), 만 형제(하인리히 만의 『충복』 토마스 만의 『부덴부르크 일가』) 등이 포함되었다.¹⁴⁾ 1980년대에 나온 세계문학선집은 목표와 달리 100권 모두 간행이 되지는 않았고 이 시기에는 소련 문학이나 중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된다. 1986년부터 출간된 세계문학선집은 실러(『실러

13)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20쪽.

14)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4), 359쪽.

희곡선』), 괴테(『파우스트』), 하이네(『하이네 시선』), 레쎅, 하우프트만(『레쎅, 하우프트만희곡선』) 등이 포함되어 이전에 비해 수록된 독일 문학 작가와 작품이 늘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번역된 작가인 여러 작가들(하이네, 쉴러, 하인리히 만, 요하네스 베허 등) 중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와 그의 작품 번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쉴러 작품의 번역, 특히 「빌헬름 텔」의 번역을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쉴러는 1907년 『서사건국지』(원작: 쉴러의 「빌헬름 텔」과 『애국부인전』(원작: 쉴러의 「오를레앙의 처녀(Die Jungfrau von Orleans)」)의 번안 예에서 보듯 한국 최초로 수용된 독일 문학 작가라 할 수 있다. 1907년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의 초미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고 애국계몽을 위한 새로운 문학의 주인공으로서 빌헬름 텔과 잔 다르크는 이러한 시대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남녀 영웅적 인물이었다.

둘째, 쉴러의 「빌헬름 텔」은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자주 번역이 되고 읽힌 드문 작품으로서 비교연구가 용이하다. 남한의 번역사는 정치와 거리를 두면서 점차 문학적 소통체계 내에서 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경희나 이재영의 논문에서 보듯 독일 고전주의 문학작품으로 혹은 쉴러의 미적 교육론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¹⁵⁾ 이에 반해 북한에서의 이해는 민중봉기나 계급투쟁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순수문학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른 이러한 수용은 앞서 이

15) 이경희, 「미적 인간과 미적 국가의 문학적 구현. 쉴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제51호 (2013), 181~202쪽; 이재영, 「자유를 위한 저항과 혁명, 그리고 폭력」 『빌헬름 텔』 역자 후기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05~225쪽 참조.

야기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수용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때 실러는 북한에서 ‘계몽주의’ 작가로 소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에서 세계문학, 고전문학으로 수용이 되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는 문학번역 연구의 흥미로운 비교점이 될 것이다.

셋째, 자료의 접근 가능성이다. 실러의 연구자료 중 「빌헬름 텔」은 북한에서 번역된 세 종의 번역본을 구할 수 있어 번역 비평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1966년과 1984년, 1986년 세 종의 번역본을 비교분석해 본다. 중점은 이 세 작품의 비교분석에 놓여있지만, 이때 실러의 원작과의 비교 및 남한에서 발행된 번역작품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번역의 기본적인 지평인 등가성과 차이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독일 문학 수용상황을 살펴보고 실러의 「빌헬름 텔」 번역의 구체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4번, 해방 후 남한에서 32번, 북한에서도 적어도 3번 이상 번역이 되었는데 북한의 세 판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되 남한본과의 공통점과 차이도 같이 분석할 것이다. 즉 실러의 미학관과 문학관이 남과 북에서 각기 어떻게 이해되는지 뿐 아니라 구체적 번역비평을 통하여 남한 북한 번역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실제 북한의 문학 강령이나 번역관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교조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나 실제 번역도 그러한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는 것은 공통의 독서목록으로서의 ‘세계문학’을 매개로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를 뛰어넘어 소통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김경식의 희망 어린 지적을 반영하는 것이다.

II. 쉴러의 「빌헬름 텔」 번역

1. 「빌헬름 텔」

프리드리히 쉴러의 「빌헬름 텔」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1804년에 완성되고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괴테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당대에 이미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의 생성연도나 핵심 내용 등을 보면 알 수 있듯 쉴러가 칸트 철학과 프랑스 대혁명에 큰 영향을 받아 쓴 작품이며 쉴러의 전 생애의 철학이 집약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 건국사의 실제 역사에 바탕을 둔 이 사건과 더불어 사냥꾼 빌헬름 텔에 대한 전설이 서로 얽혀 사건이 여러 갈래로 진행된다. 스위스 민중들이 오스트리아의 태수 게슬러의 탐욕과 폭정, 횡포 아래 신음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사건의 배경으로 이야기되고 이에 대항하여 스위스의 세 주인 우리, 운터발덴, 슈비츠의 대표들이 뤼틀리에 모여 민중봉기를 계획한다. 이들은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건 우리를 위해서야 한다. 노예가 되느니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희생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뭉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식”을 위해 외세의 압제에 맞서 싸우기로 한다.¹⁶⁾ 이 작품은 이후로도 후세 문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없이 많이 무대에 올려졌다. 특히 최근 로시니의 오페라로 『기욤 텔』로 각색이 된 것이 그 중 가장 눈에 띈다.¹⁷⁾

16) 프리드리히 쉴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서울: 을유문화사, 2009), 56-57쪽.

17) 북한의 쉴러 수용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 동독의 쉴러 수용과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동독에서도 1945년 독일사회주의공화국(DDR)를 설립하면서 신생국가를 위한 공동의 ‘문화적 기억’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이때 문학과 정전이 공동의 기억과 이념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알라이다 아스만을 인용하면서 포라인은 문학 수용에 있어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수용 작업,

2. 해방 이전의 번역

실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은 한국의 독일문학 이입사와 관련하여 이 정표를 세운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한반도에서의 번역사 역시 흥미롭다. 190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개된 독일문학 작품이 바로 「빌헬름 텔」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정철이 이 드라마의 일본 번역본을 읽고서 소설 『서사건국지 瑞士建國誌』로 개작한 것을, 백암 박은식이 토를 달고 번역하여 같은 제목으로 신문에 연재하였다.¹⁸⁾ 실러의 연극 제목이 「빌헬름 텔」이었다면, 중국과 조선의 소설 제목은 스위스 건국사인 『서사건국지 瑞士建國誌』인데 여기에서 보듯 작품들은 번역/번안되면서 단순히 제목이나 발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수용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 및 번역자의 이해와 맞물려 전체적인 개작을 통해 옮겨지고 새롭게 쓰여졌음을 보여준다.¹⁹⁾ 오랫동안 ‘번안’은 ‘번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격적

정전화 작업, 초시간성 등이 작동함을 강조한다. 이때 문학 텍스트는 문화 텍스트로 읽히게 되고 실제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정전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동독 설립 이전에 창작된 작품들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때 동독은 실러와 그의 정치적 변혁 이념을 찬양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오랫동안 학교에서의 교과서와 권장 독서 리스트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포라인이 관찰한 것처럼 동독에서 “정전 Kanon 논쟁”이 벌어졌어도 항상 포함되었던 실러의 드라마들은 70년대 중반에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수용태도의 변화가 일어났고 점차 문화텍스트보다는 문학 텍스트로 읽힌다. 또한 이전에 많이 읽혔던 작품이 「군도」나 「빌헬름 텔」에서 「간계와 사랑」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 「간계와 사랑」의 해석도 교육부 주도의 규범적인 해석에서 점차 벗어나 계급 문제나 사회비판적 작품이 아니라 페르디난트와 루이제의 사랑이 전면에 등장함을 관찰하고 있다. Christian Vorein, Schiller für Schüler (Düsseldorf: BvB, 2015), pp. 13-33.

18) 당대의 문화적 순환의 연관에서 볼 때 일본과 중국을 통해 다단계의 이동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단순한 번안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복잡한 수용사는 분석과 평가에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한다.

19) Yun-Young Choi, “Fremdheit und Gender. Übersetzung und Adaption der

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번역’으로서의 문학 번역에 대한 이론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변안은 수용자의 입장과 이해를 반영한 보다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 식민주의 이후로 ‘번역’ 개념 자체의 이해가 크게 변모하고 있는데 원전과 저자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보이지 않던 번역자가 제2의 창작자이자 적극적 매개자로서 전면에 등장하고 행위자(agent)로서의 수행성, 행위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변안은 번역자가 속한 특정 시대나 사회의 이해를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의 일본이 원전에 충실한 번역, 순수문학으로서의 번역을 주장했다면 이 또한 보다 큰 정치적,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 문학을 받아들여 중국과 한국이 자국 사정에 맞추어 정치소설 『서사건국지』 『정치소설. 서사건국지』로 개작했다면,²¹⁾ 이 또한 수용자나 번역자의 특정 관심과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이는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문화번역’의 새로운 이해와 맞물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독일문학이다. 이러한 점에서 20세기 초 「빌헬름 텔」의 번역사는 당대 동아시아의 지식의 순환과 수용 양상의 지형도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이다.²²⁾

정철이 가한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드라마를 소설로 장르를 변환시킨 것 이외에 인물들의 역할과 서사의 변형이 있다(188-189). 『서사건국지』 소설은 독일 원작의 여러 줄기의 이야기들이 생략되고 서사(瑞士, 스위스)가 이웃나라 일이만(日耳萬, 오스트리아)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구국

deutschen Literatur in Ostasien” Literaturstrasse, vol. 22 (2021), pp. 185-200.

20) 번역과 변안을 한국의 근대소설 탄생과 시대정신과의 관련지어 연구하고 있다. 박진영, 『변안과 번역의 시대』 (서울: 소명, 2011) 참조.

21) 박은식이 정철의 소설에 주로 토를 달고 부분적으로만 변형을 했다면 같은 해인 1907년에 나온 김병현의 『정치소설. 서사건국지』는 한글로 개작을 하고 있다.

22) Yun-Young Choi, “Fremdheit und Gender,” p. 185.

지사인 유림척로(維霖惕露, 빌헬름 텔)가 나타나 예사룩(倪士勒, 게슬러)를 물리치고 독립과 자유를 얻어 공화국이 건설되는 큰 줄기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 정철은 중국의 전통 정치 무협 소설과의 연속선 상에서 주인공 빌헬름 텔과 아들의 역할을 전면으로 내세워 애국자로 훨씬 적극적으로 성격을 전환하였고 오스트리아 제후에 대한 스위스 주들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게 만들었다. 또한 독일의 원작과 달리 아들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의 제안으로 격문을 써 병사들을 모으고 애국가를 짓고 스위스의 역사를 알려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때문이다. 유림척로는 민중의 지도자로 앞장을 서 예사룩을 죽이고 적군을 무찌르고 서사공화국을 건설하게 된다. 독일의 희곡이 고전주의 드라마로서 개인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중국의 변안 작품은 영웅 서사와 건국 서사가 결합된 정치소설로 변모한 것이다. 더불어 실러의 고전주의적 정신을 대변하는 자유에 대한 보편주의는 중국에서는 낯선 외세에 맞서 싸우는 계몽적인 애국심으로 변모한다. 이 점은 중국 소설을 변안한 박은식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1907년이라는 당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정복욕 앞에 위태롭게 서 있던 조선의 상황을 스위스 건국사 이야기에 반영시켜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박은식은 당시 구한말에 유행했던 소위 ‘퇴폐적’ 연애 소설과는 거리를 두고, 문학을 활용해 국민들을 계몽하고 자극하려는 새로운 정치지향 소설을 소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소설 장르사에서도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또한 이 소설이 연재된 신문이라는 미디어는 당시에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박은식은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3. 해방 이후의 남한에서의 「빌헬름 텔」 번역

「빌헬름 텔」은 해방 이전에 총 4종이 번역되었으며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는 총 32번 번역되어 가장 많이 번역된 독일 문학작품 중의 하나로 기록된다.²³⁾ 1990년까지의 독일 문학 관련 일제강점기와 남한의 번역상황은 이충섭의 기념비적인 자료집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 정보』에 담겨 있다.²⁴⁾ 여기에서 이충섭은 1907년의 번역들을 포함하여 12종의 번역본을 서지 정리하고 있다. 권선형은 위데코(UeDeKo: Übersetzungsdatenbank Deutschsprachiger Literatur in Korea) 프로젝트에서 1988년의 안인희의 완역본을 포함하여 총 36종의 번역을 소개하며 이 작품의 번역상황을 개괄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번역본들의 전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²⁵⁾ 해방 이후에도 한동안 번역보다 번안이 훨씬 더 많았고 특히 일제 강점기에 그랬었듯 어린이용으로 개작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제목이 대부분 「윌리엄 텔」 또는 「윌리암 텔」로 번역된 점을 볼 때, 영어본에서 중역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작품이 한국에서 교과서에도 수록되었다는 점을 볼 때에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드라마 완성도가 교육적 관점에서도 특기할 만함을 알 수 있다.²⁶⁾ 독일에서도 동서

23) 38종의 번역본 서지는 한독문학번역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번역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위데코 홈페이지에 따른다. 이 자료는 2018년까지 한국에서 번역된 독일문학의 전체 서지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 중인 과제이다. <<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UeDeKo>>.

24) 이충섭,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 정보』 (서울: 한국문화사, 1990), 874~875쪽.

25)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 <[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EB%B9%8C%ED%97%AC%EB%A6%84_%ED%85%94_\(Wilhelm_Tell\)](http://www.uedeko.or.kr/wiki2/index.php/%EB%B9%8C%ED%97%AC%EB%A6%84_%ED%85%94_(Wilhelm_Tell))>.

26)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독일 문학작품이자 교과서에 실린 몇 안 되는 독일 문학작품 중 하나로 60년대와 80년대에 그러하였다. 자세한 것은 권선형, 「빌헬름

독을 망라하고 이 작품은 김나지움 독어(독일의 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졌었는데, 이것은 민족의 독립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서독)나 민중혁명(동독)을 보여주는 희곡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희곡의 특징적 구조를 잘 보여주는 희곡의 형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와 남한에서 총 36번이나 번역이 되었지만 희곡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역된 번역서는 이제까지 5종에 불과하다. 안인희(1988)의 번역을 필두로 한기상(1993), 이원양(1998), 이재영(2009), 홍성광(2011)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미 안인희의 번역 해설에서도 보이지만 번역자들은 쉴러의 미학 이론과의 연관성, 혹은 폭력 양상의 비판(한기상, 이원양, 홍성광) 속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있고 운문과 산문의 번역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며 무대 위에서의 공연 가능성의 고려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²⁷⁾

4. 북한에서의 쉴러와 「빌헬름 텔」 수용사

북한에서의 쉴러의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료 접근의 문제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에 제한된다. 쉴러 수용을 다루려면 문학사, 문학비평, 번역과 번역비평뿐 아니라 공연과 공연비평, 더 나아가 연구와 교육상황도 폭넓게 살펴보아야 하나, 신문 등의 언론에 보도된 자료, 김일성대학의 단행본과 자료와 실제 번역본 등 접근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쉴러는 북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독일 작가라고 말할 수 있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참조.

27)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다.²⁸⁾ 1972년에 나온 『문학예술사전』에 수록된 드문 외국 작가로서 그의 생애와 작품이 전반적으로 소개되는데 그 분량이 적지 않다. 남한의 소개와 큰 차이 없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쉴러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작품들은 강한 정치적 호소성을 띠는 반면에 현실이 다면적으로 묘사되지 못하고 흔히 작가의 사상이 직선적으로 로출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²⁹⁾ 1975년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나온 『외국문학사』를 보면 ‘봉건사회의 붕괴기와 외국문학’ 편에서 서양 문학을 고찰하는 가운데 독일계몽주의 자 쉴러라고 독립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독일 극작가 쉴러는 희곡 《강도들》(1782)과 《월헬름 텔》(1804)에서 봉건제도의 부패성과 포악성에 타격을 가하고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레하면 그의 작품 《강도들》에서 쉴러는 칼 모르의 형상 속에 당시 독일의 침체한 봉건제도와 봉건적죄악에 항거하는 폭동자의 면모를 구현시켰다. 그러나 주인공은 출로를 알지못한데로부터 인민대중과 리탈되어 고독하게 투쟁하는 반항아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독일계몽주의자들의 약점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³⁰⁾

즉 두 작품의 예를 통하여 쉴러가 당대 봉건제도의 패악과 민중 투쟁에 대한 주제화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대중 투쟁과 개인의 입지와외의 관계를 비판하고 있어 성취와 더불어 약점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문학관에서는 주체 철학이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는데 이를 인본주의와 결부시켜 해석하면서 쉴러를 대표적 사례로 인용

28) 북한에서 이제까지 나온, 확인할 수 있는 쉴러에 대한 글은 주로 로동신문사의 글이 많고 찬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드리히쉴러에 대하여」 『조선문학』 제6호 (1955); 『로동신문』 1955년 5월 9일 (「독일의 위대한 시인 쉴러」); 『로동신문』 1955년 5월 16일 (「쉴러서거 一백五〇주년 기념의 밤」); 『문학신문』 1963년 1월 11일 (박홍석, 「쉴러와 시대정신」) 등이 그러하다.

29)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591쪽.

30) 『외국문학사』, 142쪽.

하기도 한다. 2000년에 나온 「주체철학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글은 인본주의 자체를 19세기 말 쉴러에 의하여 제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¹⁾ 이때 인본주의의 개념은 북한 특유의 정치사상사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세계가 인간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본주의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조상으로 쉴러는 앞서의 『외국문학』에서 본 것처럼 ‘계몽주의 극문학’의 대표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에서의 문학사조와 분류가 서구와 다른데, 크게 볼 때 문예부흥기-고전주의/인문주의-계몽주의-진보적 낭만주의-비판적 사실주의-(혁명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문학)-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구분된다.³²⁾ 서유럽이나 한국에서의 독일문학사조의 분류가 18세기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계몽주의-슈트름 운트 드랑-고전주의-낭만주의-비더마이어-청년독일파-사실주의-자연주의-세기전환기-표현주의-신즉물주의-나치즘과 망명문학-동/서독 문학-통일 이후의 문학의 순서를 밟는 것을 고려해보면 전체 문학사 수용에서의 큰 맥락적 차이가 드러난다. 또한 쉴러의 「빌헬름 텔」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민중관, 혁명관, 미적 교육론 등이 담긴 결정적인 작품으로 해석되고 고전주의자로 낙인찍고 있다. 쉴러를 계몽주의자로 해석하느냐 혹은 고전주의자로 해석을 하는가는 문학 내적뿐 아니라 문학 외적 맥락까지 포함시킨 해석의 문제이다.

31) 저자는 “세계란 근본적인 질료이며 우리의 제조물이다. 세계는 원래 이러한 것이었다든가 우리와 떨어져있었다든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헛된 일이다. ... 세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다. 위의 글, 33쪽.

32) 『외국문학사』에서는 외국문학사를 총 5개의 시기로 나누어 노예소유자사회시기의 외국문학, 봉건사회의 형성발전기의 외국문학, 봉건사회의 붕괴기의 외국문학, 19세기~20세기초의 외국문학,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기의 외국문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에도 쉴러는 계몽주의의 대표적 극작가로 소개된다.

III. 북한의 「월헬름 텔」의 번역과 이에 대한 번역비평

북한에서 이제까지 나온, 확인할 수 있는 실러에 대한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³³⁾

- 프리드리히 실러 저, 홍석근·공익현 역, 『실러 희곡선』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총동맹, 1963)
- 프리드리히 실러 저, 강학태 역, 『월헬름 텔』 (문예출판사, 1984)
- 프리드리히 실러 저, 공익현 역, 『장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총동맹, 1986)
- 프리드리히 실러 저, 공익현·조맹연 역, 『실러희곡선』
(문예출판사, 1986)

첫 번째 작품과 네 번째 작품선에서 「월헬름 텔」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작품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은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작품이 모두 포함하는 작품인 「월헬름 텔」을 비교 분석한 번역비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월헬름 텔」을 세 번역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비록 1963년과 1986년의 번역본은 전자는

³³⁾ 아쉽게도 북한의 번역본들은 그 저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의 번역본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번역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원전에서 직접 번역을 했는지 다른 나라의 번역본에서 중역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목인 빌헬름 텔을 월헬름 텔로 번역하고 수많은 독어 인명과 지명(웨르나, 요르그, 슈미드, 왈터, 웨르니, 아르놀트, 윈켈리드, 제와, 게르투르드, 헤드위히, 아름가드, 메히트힐드, 힐데가드, 두우리 등)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데에서 보듯 독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홍석근과 공익현의 공역이고 후자는 공익현과 조맹연의 번역본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후자는 전자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 이 번역상황은 상당히 특기할 만하다. 남한에서의 번역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36회나 되지만 드라마로서의 완역본은 5차례만 나왔다. 비록 독어 원본에서의 번역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 3차례 번역본이 나왔는데 2차례가 완역을 시도했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것이다. 또한 완역본은 역자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는 가운데에서도 작품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독서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보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이 세계문학이 북한에서 얼마만큼 읽히고 확산이 되었는가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번역본의 경우 서문과 역자 후기가 달려있어 정치적이고 계몽적인 독해를 강조하지만 원작이 충실하게 큰 왜곡없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독자로서는 보다 자유로운 다양한 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작품 이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앞서 언급한 권선형이 남한 번역본 5종을 번역비평할 때 다룬 두 장면을 집중 분석한다.³⁴⁾ 이 장면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남한의 해석과 민중혁명을 강조하는 북한의 해석 간의 차이를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바로 전체 민중봉기와의 관계 속에서 텔의 성격화와 위치를 잘 설명해주는 1막 3장의 슈타우파허와 텔의 대화, 그리고 4막 3장의 게슬러를 살해하기 위해 숨어서 기다리는 텔의 독백 장면, 두 장면이다. 전자의 경우 슈타우파허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동맹을 기획하며 텔이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장면이다. 이때 텔의 대답은 슈타우파허의 기대와 다르다. 오스트리아의 관리가 아내를 성폭행하려하자 살해하고 추격을 받는 동포를 구해주고 온 텔에게

34)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슈타우퍼허가 최근의 상황 변화를 이야기해주며 동참하라고 권유하지만 텔은 가족이 기다린다고 거절한다. 최근의 남한의 많은 해석들은 이 장면을 작가이자 역사가 쉴러가 오래 고민한 민중 봉기와 폭력의 문제에 대한 숙고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으로 보고 있다.³⁵⁾ 주지하다시피 쉴러는 프랑스 대혁명을 목격하면서 혁명과 폭력과 혼란, 군중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으며 이 말년의 드라마를 쓰기 전에 이미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1795)을 통하여 이 시대적 문제에 대하여 작가 나름의 답을 낸 적이 있다. 즉 프랑스 대혁명에 열광하였으나 이후 시기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작가는 정치적 혁명 이전에 각 시민들의 윤리의식을 고양하여야 하며 이는 예술을 통한 교육이 관건이라는 견해를 펴 려하였다. 때문에 쉴러의 작품 「빌헬름 텔」에서 우리, 운터발텐, 슈비츠 주가 뭉쳐 봉기를 일으키고자 할 때 텔은 이러한 봉기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사과 쏘기와 게슬러 살해)들을 담당하지만, 전체 봉기 자체에서는 분리되어 홀로 서 있는 개인으로 등장하고 마지막에도 민중봉기 자체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며 이는 쉴러가 의도한 것이었다. 즉 텔은 자유의 사도이지만 민중 봉기의 폭력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이재영도 이러한 작가의 고민을 쉴러의 생애와 문학관 안에서 설명하면서 “텔 자신은 극 안에서 지극히 홀로 서 있으며, 그의 일은 사적인 일이고, 극의 끝에서 공적인 일과 결합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적인 일로 남아 있다”고 요약하고 있다.³⁶⁾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철과 박은식은 당대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변형시켜 텔과 아들이 봉기에 앞장선 것으로 개작하였다. 북한 해석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나 정치적 변혁운동과 유리된 개인적 고립을 단점으로 지적한다.

35) 이재영, 「자유를 위한 저항과 혁명, 그리고 폭력」, 220~221쪽 참조.

36) 위의 글, 220쪽.

1. 홍석근·공익현 역, 『월헬름 텔』, 『실러 희곡선』(1963)

실러 희곡선은 1963년 평양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세계문학선집의 8권으로 출간이 되었으며 홍석근과 공익현의 공저로 되어 있고 「군도」, 「간계와 사랑」, 「오르레앙의 처녀」, 「월헬름 텔」의 네 작품이 담겨 있다.³⁷⁾ 이 선집에는 박홍석이 서문을 달았으며 북한의 문학관과 세계관을 투영하여 실러의 문학사적, 사회사적, 혁명사적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 즉 실러의 문학의 시작을 질풍과 노도 운동에서 보며 이 운동을 “시대의 해방적 과업”³⁸⁾의 수준에 올려놓은 계몽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군도」, 「간계와 사랑」을 이 문학운동의 최고 절정으로 보고 있다. 이때 문학이 갖는 시대적 가치와 사회정치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엥겔스의 『독일의 상황』을 인용하여 부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독일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³⁹⁾은 문학이었다고 기술한다. 실러는 특히 봉건 전체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비판뿐 아니라 혁명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 텔이나 잔 다르크 등의 영웅적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월헬름 텔」에서는 “인민들의 봉기”⁴⁰⁾를 주제화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러의 말년 작품은 “오지리 전제주의를 반대하는 스위스 농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텔의 형상”⁴¹⁾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나폴레옹에 강점된 독일 상황에서 민족해방투쟁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평가한다. 박홍석은 이 작품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인민 대중의 힘을 발견”⁴²⁾한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텔이 게슬러를 죽인 것을 “봉기의 첫 신

37) 여기에서는 접근 가능한 1966년 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8) 박홍석, 「서문」 『세계문학선집』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5쪽.

39) 위의 글, 5쪽.

40) 위의 글, 6쪽.

41) 위의 글, 13쪽.

42) 위의 글, 16쪽.

호”⁴³⁾로 해석하여 민중봉기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작품 내의 여러 장면을 근거로 내세운다(죽어가는 계슬러에 대한 텔의 대답, 텔과 아들의 대화 등). 박홍석은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실러의 한계를 지적한다. 실러는 예술의 교양적 역할에 지나친 의의를 부여하고 있어 군주도 미적 교양으로 교육할 수 있고 새로운 세계가 찾아온다고 본 것을 “심한 세계관적 오류”⁴⁴⁾로 간주한다. 이렇게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박홍석의 해석은 일제강점기 시기나 남한의 해석과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외세에 맞서 계급의식보다는 민족의식이 앞섰었고, 남한에서는 실러를 많은 성찰과 고민을 거쳐 인민봉기와 거리를 두는 고전주의자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봉기와 관련해서도 외세의 압박에 계급을 초월하여 민족 이념으로 단결하여 독립을 하자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 번역에서도 이러한 해설에서의 사회주의 교조적 관점이 그대로 견지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 저본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 홍석근과 공익현의 번역이 중역이라 할지라도 완역이 되어 실러 문학이 그대로 드라마로 옮겨졌다면 문학작품 자체가 주는 의미는 강령에서 해석한 방향과는 상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빌헬름 텔의 성격화 분석과 전체 드라마에서 그의 위치, 그리고 작품 전체 해석과도 상관이 있다. 주인공 빌헬름 텔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남한에서의 해석은 텔을 용감하고 의로운 개인으로서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돕지만 일단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고 거리를 두려는 인물로 해석한다. 그러나 텔은 사과 쏘기 사건을 통해 가족과 자식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태로워졌을

43) 위의 글, 15쪽.

44) 위의 글, 16쪽.

때, 이렇게 폭력이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복이 되었을 때 분연히 일어선다. 독자들에게 이러한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4막의 텔의 독백은 꼭 필요하다. 또한 텔은 게슬러를 죽인 후 “이제 오두막에 자유가 돌아오고 무고한 사람들은 안전을 되찾았다”⁴⁵⁾고 외쳐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직접 주위 사람들에게 해명한다. 5막에서도 집으로 돌아온 텔은 부인 헤트비히에게 “이 손이 내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구했다”⁴⁶⁾라고 말하지만 민중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황제를 살해하고 자기에게 피신을 온 파리치다를 거부한다. 이러한 폭력의 의미 구조를 생각해볼 때 1막에서 자유주의자 텔이 스타우파허의 참여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이 두 인물의 입장 차를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권선형은 남한의 5종 완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주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적 측면과 문체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즉 안인희, 한기상, 이원양, 이재영, 홍성광의 번역이 간결성과 함축성을 원문처럼 유지하였는지, 동어를 반복하는지, 풀어쓰기 번역을 하는지, 그럼으로써 독자의 이해 편의성에 중점을 두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어 원문에서는 “마음(Herz)”, “말(Wort)”, “행동(Tat)”이 두 인물 사이에서 주거나 받거나 하며 단순, 명확하며 리듬있게 반복이 되고 있다.⁴⁷⁾ 예를 들어 이재영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⁴⁸⁾

45) 실러, 프리드리히 저, 홍석근·공익현 역, 「윌헬름 텔」 『세계문학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161쪽

46) 위의 글, 182쪽.

47) Schiller, Friedrich, Wilhelm Tell, *Schauspiel*, (Tübingen: Gotta, 1805)

TELL	Mein Haus entbehrt des Vaters. Lebet wohl.
STAUFFACHER	Mir ist das Herz so voll, mit Euch zu reden.
TELL	Das schwere Herz wird nicht durch Worte leicht.
STAUFFACHER	Doch könnten Worte uns zu Taten führen.
TELL	Die einzige Tat ist jetzt Geduld und Schweigen.
STAUFFACHER	Soll man ertragen, was unleidlich ist?

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이만.
슈타우파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소.
텔 말을 한다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슈타우파허 그래도 말을 나누다 보면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오.
텔 지금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이란 인내와 침묵뿐입니다.
슈타우파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한다는 거요?⁴⁹⁾

1막 3장의 이 장면은 홍석근과 공익현의 1966년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다.

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타우확허 자네와 할 얘기가 많은데, 어디 가슴이 답답해 견디겠어
지.
텔 말을 한다고 답답한 가슴이 풀리겠나요.
스타우확허 그래도 의논을 해야 성사가 될 게 아닌가.
텔 지금은 참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할 땀니다.
스타우확허 참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지!⁵⁰⁾

이들의 번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원작에서 어휘들의 반복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리듬을 살려 번역이 되지 않고 풀어서 번역이 되고 있다. 즉 “마음(Herz)”, “말(Wort)”, “행동(Tat)”라는 핵심 어휘를 두 인물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각기 의견이 다름을 드러내는데 “가슴”과 “행동”은 반복이 되나 “말”은 “말을

48)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재영의 번역을 남한의 번역본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섯 번역가 중 실러 전문가이면서 또한 권선형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다가 가장 최근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49) 실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31쪽.

50) 실러 저, 홍석근·공익현 역, 『일헬름 텔』, 161쪽.

하다”와 “의논을 하다”로 다르게 번역되어 원문이 같은 어휘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원문이 상연을 고려한 드라마로서 간결하면서도 리듬을 살리는 운문체 언어로 이루어지고 두 인물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을 같은 어휘의 반복을 통해 긴장시키고 있는데 이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그 갈등을 유사한 정도로 경험할 수가 없다. 비록 같은 의미의 자장에서 움직이고는 있다 하나 어휘를 다르게 사용하고 설명투의 긴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구절씩 자세히 살펴본다면 번역들도 원문과 의미상으로도 거리가 있음이 드러난다. 원문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이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 것인데 홍석근과 공익현의 번역은 이를 “가슴이 답답하다”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의논을 해야 풀리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이 추구하는 가치인 가족과 고향은 국가나 계급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그대로 번역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핵심적 장면이라 할 4막 3장을 살펴보자. 우선 이재영의 번역을 살펴보자.

쓰라린 고통을 불러오는 화살이여, 나와라. / 내 소중한 보배,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여, / 네게 표적을 하나 주마. 지금까지는 / 아무리 간청해도 허락해 주지 않던 표적이다. / 하지만 네게는 허용해 주마. / 그리고 너, 흥겨운 경기에서 / 늘 내게 충성을 바쳐 온 익숙한 시위여, / 엄중한 순간에 나를 배신하지 말거라. / 매서운 화살에 그토록 자주 날개를 달아 준 / 충직한 줄이여, 이번만은 꼭 버터 다오. / 지금 화살이 힘없이 내 손을 빠져나가면 / 다시 한번 쓸 기회는 없다.⁵¹⁾

고전주의 드라마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시대적 격차가 커서 남한의 5종의 번역본들도 어휘와 문장 사용에 있어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

51) 실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150쪽.

고 있다. 특히 해석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첫째 줄의 “Bringer bitterer Schmerzen”, 둘째 줄의 “Kleinnod”, 일곱째줄과 아홉째줄의 “der Freude Spielen”과 ‘im fürchterlichen Ernst’와의 대립 그리고 여덟째 줄의 “widerstehn”의 해석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⁵²⁾ 첫 번째 어휘는 원작에서는 화살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이재영의 경우 의미를 살려 “화살”로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화살을 가리키므로 “보배”로, “흥겨운 경기”와 “엄중한 순간”으로 대비시키고, 마지막은 “허용하다”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⁵³⁾ 다음으로 홍석근과 공익현의 번역을 살펴보자.

“너, 죽음을 주는 화살아, 나의 가장 고귀한 보배야, 전통(箭筒)에서 나오라. 너에게 목표를 주마. 지금까지 아무런 애원도, 청원도 뚫지 못 한 목표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뚫고야 말리. 그리고 나의 믿음직한 화살아. 너는 궁술시합에서 언제나 나에게 충실하였지, 이 결정적 시각에 나를 버리지 말

52) Schiller, Friedrich, Wilhelm Tell, Schauspiel, (Tübingen: Gotta 1805)

Komm du hervor, du Bringer bitterer Schmerzen,
 Mein teures Kleinod jetzt, mein höchster Schatz -
 Ein Ziel will ich dir geben, das bis jetzt
 Der frommen Bitte undurchdringlich war -
 Doch dir soll es nicht widerstehn - Und du,
 Vertraute Bogensehne, die so oft
 Mir treu gedient hat in der Freude Spielen,
 Verlaß mich nicht im fürchterlichen Ernst.
 Nur jetzt noch halte fest, du treuer Strang,
 Der mir so oft den herben Pfeil beflügelt —
 Entränn er jetzo kraftlos meinen Händen,
 Ich habe keinen zweiten zu versenden.

53) 권선형은 다섯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화살”, “보배” 등을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보고 있지만 나머지비교에서는 “저항하다”, “기쁨의 유희”(안인희)와 “즐거움의 유희”(이원양)를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의 경우 “Spieln”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의 문제이다.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아다오, 지금까지 몇 번이고 강한 화살을 날려준 나의 충실한 화살이여, 이제 한 번 더 부탁한다.”⁵⁴⁾

이들의 번역은 원작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독일어 원문에 없는 “전통에서 나오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고 마지막의 부탁은 화살이 아니라 줄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도 보듯 원작에서 옮겼다기보다는 중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영의 번역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운문보다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산문식 번역을 택하고 있다. 때문에 공익현의 원문의 행이나 어휘의 순서를 살리려는 노력이 덜하며 드라마 언어의 리듬감은 떨어지고 있다. 독자를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의역을 하고 있으며 화살을 ‘너(du)’라고 칭하면서 문체를 ‘-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실러 당대의 문체뿐 아니라 공익현이 번역한 1970년대의 문체가 반영된 것이라 추정된다. 첫 번째 어휘는 원작에서는 화살을 의인화한 것인데 공익현은 “화살”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고 이는 남한의 여러 번역본들도 마찬가지이다. “Kleinnod” 같은 경우 가장 고귀한 보배라 강조해 번역하고 있으며 “궁술 시합”과 “결정적 시각”이라 표현한 것은 두 대비되는 관계는 잘 나타나 있으나 원작의 어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widerstehen”하지 말 것을 역시 의역하여 “부탁한다”로 번역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공익현의 번역은 원작에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없으나 이는 중역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문이 번역되었으며 또한 독자들을 고려한 읽기에 큰 무리가 없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휘나 구문을 보편적인 인간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 서문이나 후기와 같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나 문장으로 옮겨지거나 왜곡되지 않은 번역임을 알 수 있다.

54) 실러 저, 홍석근·공익현 역, 『일헬름 텔』, 403쪽.

2. 강학태 역, 『월헬름 텔』 (1984)

우선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번역이 “어린 독자”들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것이다.⁵⁵⁾ 남한에서도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번역본이 나왔고 심지어 드라마 완역본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공통점은 흥미롭다. 권선형은 그 이유를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활로 쏘아 맞힌 명사수 이야기, 자유를 위한 민중들의 항거, 외세의 압제에 맞선 애국심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내용은 아동문학용으로 적합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⁵⁶⁾ 강학태의 단행본은 전체적으로 기획이 어린 독자층에 맞추어져 있어 표지나 본문에 삽화들이 여럿 삽입되었다. 표지의 삽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며 아버지는 활과 화살을 메고 있으며 아들은 존경하는 눈길로 아버지를 우러러본다. 표지 다음의 삽화는 스위스를 상징하는 너럭바위 위에서 빌헬름 텔이 활을 잡고 겨냥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 외에 본문 내에 10여 장의 삽화가 다소 만화풍의 스케치로 그려져 있으며 당시 남한에서도 유행했던 화풍이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설러의 원작이 막이나 장에 소제목이 없는 5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였는데 강학태는 이를 총 15장으로 나누어 총 244쪽 분량의 소설로 장르를 바꾸고 있다. 각 단원들의 제목은 ‘산속사람들의 노래’, ‘사냥군 월헬름 텔’, ‘스타우확허와 그의 안해’, ‘괴상한 포고문’, ‘한마음’, ‘젊은 남작’, ‘숲속의 모임’, ‘벼랑길에서 있던 일’, ‘고귀한 사랑’, ‘사과를 명중시킨 월헬름 텔’, ‘폭풍우속에서’, ‘남자의 유언’, ‘폭군의 말로’, ‘중소리’, ‘자유

55) 강학태는 단행본의 맨 앞부분에 서문을 달았을 뿐 아니라 말미에도 ‘프리드리히 설러와 월헬름 텔에 대하여’를 쓰고 있다. 설러, 프리드리히 저, 강학태 역, 『월헬름 텔』 (평양: 문예출판사, 1984), 5쪽.

56) 권선형, 「빌헬름 텔」 번역비평(uedeko 홈페이지).

수호자 만세'이다. 작품의 시작은 작품 이해에 필수적인 스위스의 자연 묘사인데 푸른 하늘과, 땅, 산과 들과 물이 있는 자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으로 상징화하고 있어 주제와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이는 작품 속에서 후에 텔과 아들과의 대화 혹은 루덴츠와 베르타와의 대화에서도 반복된다. 다른 작품들은 실러 모음집 안에 번역되어 번역자가 아닌 편집자의 서문이 달려 있는데 반하여, 단행본으로 나온 이 책은 역자의 서문뿐 아니라 후기까지 붙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독자들의 독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번역의 의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 사상적 체제에 맞는 작품으로서 아동들의 애국심과 혁명 정신을 북돋아 주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강학태는 역자 서문에서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후 그 의의를 다음처럼 밝힌다.

... 이 작품은 압제의 사실에 얽매어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외세와 맞서 싸우면 능히 자유와 독립을 찾을 수 있다는 사상을 영웅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이고있습니다.⁵⁷⁾

강학태는 이 작품의 이해와 수용에 있어 다음을 강조한다. 첫째, 실러가 주인공의 성격을 이상화하지 않고 “성장발전하는 인물로 그렸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부에서 동맹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물리치고 가족에게 돌아갔으나 게슬러의 잔혹한 활쏘기를 겪고 체포되었다가 탈출하고 결국 태수의 심장을 관통하여 처단하게 됨을 지시하는 것이다. 텔은 게슬러를 죽인 후 “이제 오두막에 자유가 돌아오고 무고한 사람들은 안전을 되찾았다”⁵⁸⁾고 외친다. 둘째,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민족적 영웅”으로 찬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게슬러를 “외래침략자들의 야수성과

57) 실러 저, 강학태 역, 『월헬름 텔』, 4쪽.

58) 실러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161쪽.

잔인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요약하며 ”그런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가“(5)를 보여준다고 쓰고 있다. 또한 강학태는 이 작품의 우수함을 “사상적 높이”, “극적 짜임새”, 그리고 “성격형상의 재치”⁵⁹⁾에 있다고 요약하며 작품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약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약점은 앞서의 박홍석의 지적과는 차이가 난다. 첫째는 “원수를 무찌른 텔이 손에서 무기를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꼽고 있으며 둘째로는 “란데베르그 총독놈을 용서해주는 이야기”⁶⁰⁾이며 이 약점의 원인은 작가 실러가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을 보지못한데서 온 부족점”이라고 설명한다. 남한과 북한의 수용 및 해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차이들이 드러나나 특히 이 지점에서 실러 이해의 분기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⁶¹⁾ 강학태는 텔이 게슬러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스위스 민중봉기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는데, 이를 강조하고자 소설로 각색할 때 원작에 다른 위치에 있는 구절을 한 줄로 요약하여 넣는다.⁶²⁾ 즉 원작 드라마에는 이 위치에 없는 구절 “텔은 죽어가는 게슬러를 한동안 굽어보다가 언덕길을 올라갔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⁶³⁾를 삽입하였다. 또한 번역자는 변안 과정에서 새로운 구절을 첨가할 뿐 아니라 기존의 여러 장면들을 생략한다. 강학태가 또 다른 약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복수를 맹세하는

59) 실러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5쪽.

60) 위의 글, 6쪽.

61) 이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철이나 박은식의 『서사건국지』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애국계몽기의 중국이나 구한말의 조선에서도 실러의 작품에서 이 부분은 다르게 수용되고 있다. 즉 빌헬름 텔 부자는 이 스위스의 민중봉기의 선봉에서 있다. 이 점에서 강학태는 원작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같은 노선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62) 강학태는 소설로 직접 각색을 했는지, 아니면 외국의 아동본을 참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63) 실러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211쪽.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두 눈까지 뽑은 잔악한 영주 란덴베르거를 잡아왔지만 결국은 살려주는 장면으로서 다음처럼 번역이 된다. “마침내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아버님이 계신곳까지 끌고갔습니다. 하마터면 그놈의 머리통에다 도끼를 휘둘러박을뻔했지만 용서해주라는 눈먼 로인님의 자비심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주고말았습니다.”⁶⁴⁾ 강학태는 소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부여된 텔의 독백, 즉 계슬러를 쏘기 전에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리는 장면의 독백을 생략하고 만다. 이 독백은 텔이 자신이 의도하는 살해 행위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독자는 소설에서는 읽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번안은 한편으로는 원작을 충실히 옮기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다른 한편 수용자의 이해와 의도를 보다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⁶⁵⁾

소설이 끝나고 나서 역자는 다시 한 번 후기를 통해 독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편으로는 텔의 용감성의 원천으로 “자유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갈망”⁶⁶⁾을 든다든지 윌헬름 텔의 “희생정신”⁶⁷⁾을 성찰한다든지 혹은 침착하고 용감하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 이야기를 강조할 때 남한 독자의 이해 지평과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 이 이야기를 현대 한국에 투사하여 “공화국 남반부”⁶⁸⁾의 현실에 빗대 설명할 때에는 이 이야기를 정치화시켜 종결짓는 북한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64) 위의 글, 218쪽.

65) 번역문의 마지막에 역자는 한반도의 현실과 관련 시켜 이 작품의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쉴러의 갈등 상황을 남북한 현실에 적용시켜 미국과 당대 남한 정부를 계슬러와 비교하면서 “남반부 인민들을 하루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를 당부하기 때문이다.

66) 위의 글, 242쪽.

67) 위의 글, 243쪽.

68) 위의 글, 244쪽.

3. 공익현 · 조맹연 역, 「월헬름 텔」, 『실러희곡선』 (1986)

김경식은 북한에서 60년대 말 이후 외국문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다가 1984년의 김정일의 지시와 더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고 세계화쪽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기술한다.⁶⁹⁾ 김정일은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세계문학선집을 총 100권으로 하되 그 배열순위는 창작년대순으로 하며 작가의 세계관의 제약성으로 하여 일정하게 부족점이 있는 작품이라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달아 내보내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1986년부터 세계문학선집이 발간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43권이 나왔음을 보고한다.⁷⁰⁾ 공익현이 다시 번역하여 1986년에 나온 「월헬름 텔」은 보다 원작에 가까워진 완역본이고 63년 초판본에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 번역본이다. 이 작품은 『실러희곡선』 안에 실려있으며 총 네 작품이 번역이 되어 있다. 「도적들」, 「간계와 사랑」, 「오를레앙의 처녀」와 「월헬름 텔」로 연대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곳에서도 저본은 밝히지 않고 있다.

황영길은 맨 앞의 서문에서 이 실러 희곡선에 대한 전체 해설을 하고 있다. 실러는 “18세기 계몽주의”의 대표자로 소개되고 있으며 독일 계몽주의의 이념을 “독일인민의 해방투쟁을 반영하는 것을 문학의 주되는 과업”⁷¹⁾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실러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질풍과 노도에 영향을 받다가 이상주의적 경향이 강해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을 겪으며 인간의 미적 교양론을 내세운 점을 지적하고 있고 말년의 작품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러의 전체 일대기를 서술한다, 이러한 작가 소개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에

69)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124~125쪽.

70) 위의 글, 126쪽.

71) 황영길, 「서문」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6), 3쪽

서 나온 독일 문학사나 남한의 독일문학사와 큰 차이 없이 일생을 서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작가의 일대기 서술이 끝난 후 황영길은 단락을 바꾸어 김일성의 교시인 “피압박인민들은 오로지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해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⁷²⁾라고 표현하며 이 교시에 따라 실러의 초기작 『도적들』을 해설하고 이어 『간계와 사랑』을 해설하고 있으며 궁정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 간의 충돌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말한다. 황영길은 「월헬름 텔」의 약점으로 “선량한 왕과 귀족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 있고 주인공의 형상에서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측면들과 장면설정에서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측면들이 있다”⁷³⁾라고 지적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계급의식과 성격화 문제뿐만 아니라 장면설정의 약점을 다루고 있다. 즉 드라마 구성이라는 문학적 시각에서 조명하여 앞의 박홍석이나 강학태가 지적한 차이와는 다름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듯 이념적인 해석을 담은 서문과 달리 문학작품 자체는 드라마로 완역하였기 때문에 원작이 지닌 인륜과 보편성을 훨씬 더 많이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문은 정치 이념적 논리가 문학 작품에 우선하였다면 실제 번역작품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리와 차이와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작품 해석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으로 1막 3장의 장면을 들 수 있다.

텔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타우확허 가슴이 하 답답해 그러니 우리 얘기 좀 하자구.

텔 말씨름이나 한다고 답답한 가슴이 풀리겠나요.

스타우확허 그래도 의논을 해야 행동을 할 수가 있소.

72) 위의 글, 4쪽.

73) 위의 글, 12쪽.

텔 지금은 참고 입뚜껑을 다무는게 상책입니다.

스타우확허 허지만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한단말요.⁷⁴⁾

앞서 홍석현과 공익현의 1963년도 번역과 비교해보면 1986년의 번역은 전반적인 수정이 가해졌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텔과 스타우확허의 관계도 과거의 번역본은 텔이 스타우확허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는 관계였다면 그래서 동맹을 논의하지 않고 집으로 가겠다는 텔을 스타우확허가 질책을 하는 어조였다면, 새 번역본은 존대법과 관련하여 두 인물을 동등한 관계에서 번역하고 서로 경어체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전보다 보다 간결하게 번역이 되어 드라마 언어로서의 특징을 살리고 있으나, 가슴-말-행동의 반복되는 어휘와 긴장 관계는 여전히 전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는 “가슴”과 “행동”이 되풀이 되었다면 이제는 앞부분만 살리고 있다. 텔이 다시 한번 “행동”이라는 어휘를 받아 반복하는 것을 생략한 것은 매우 아쉽다. 전체 해석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가슴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슴의 경우 한 번은 문장 맨 앞의 위치로 이동하여 강조되고 있고 다음 대화로 다시 받고 있다. 말의 경우 말씨름과 의논하다라는 어휘로 번역되어 아직 간접적인 반복이 될 뿐이다.

텔이 게슬러를 죽이려 매복하고 있는 4막 3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번역에 수정을 가한 흔적이 보이며 원문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너, 죽음을 안기는 화살아, 나의 값진 보배야, 나의 가장 큰 보물아... 내 너에게 하나의 과녁을 주마. 지금까지 그 어떤 애원도, 청원도 뚫을 수 없었

⁷⁴⁾ 실러, 프리드리히 저, 공익현·조맹연 역, 『월헬름 텔』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6), 424쪽.

던 과녁을... 너는 그것을 뚫으리라. 그리고 너, 나의 믿음직한 활줄아. 넌 언제나 궁술시합에서 나에게 충신했지, 이 결정적 시각에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이제 한 번만 더 지켜다오 너 충실한 활줄아. 지금까지 나를 위해 그 몇 번이고 화살에 나래를 달아주어온 네가 아니냐.”⁷⁵⁾

남한에서의 번역이 시작 부분을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는”이라고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공익현은 60년대의 번역이나 80년대의 번역 모두에서 “죽음을 안기는”으로 보다 강조하고 보다 직역체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다소 과장된 번역이기는 하지만 독자로서는 이해하기 훨씬 수월하다. 또한 60년대 원문에 없는데 번역자가 임의로 추가한 “전통(箭筒)에서 나오라.”가 빠지고 “보배”와 “보물”로 반복되면서 이전보다 독어 원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활과 화살이 주제화되는 상황에서 “목표”를 이에 조응하도록 “과녁”으로 바꾸고 있으며 배반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대상도 원작에 맞추어 화살에서 “활줄”로 수정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의 번역들이 “Spielen”과 “Ernst”의 대립을 추상화시켜 흥미와 엄숙함으로 대비시키는 반면에, 공익현은 계속적으로 “궁술 시합”과 “결정적 시각”으로 나타내고 있다. “widerstehen”은 이전에는 문장 속에 통째로 삽입되어 “부탁한다”로 의역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버리지 말”다로 역시 독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고 있어 텔의 간절한 마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공익현의 1986년 번역본은 - 여전히 수많은 크고 작은, 원전과는 차이가 있는 번역을 하고 있으나 - 완역으로서 보다 독어 원문에 충실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독자들을 고려하는 다소 산문 투의 풀어쓰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문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이념을 작품 번역에서 반영하기 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번역으로서 번역자의 의도적인 변형을 많이 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식의 생경한

75) 위의 책, 491쪽.

어휘사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작품을 두고 하는 토론에는 지장이 없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는 북한에서 다른 외국 작가들에 비하여 높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통일된 사회주의 문학관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다. 특히 「월헬름 텔」의 수용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07년 박은식의 독일문학 변안 소설인 『서사건국지』에서 보다시피 당대 한국의 위급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애국계몽의 맥락에서 문학 텍스트들은 이를 둘러싼 콘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한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중들의 봉기라는 정치적 관점이 수용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강학태의 청소년 소설 「월헬름 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의 수용은 이와 달리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로운 양식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점차 정치적 맥락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고전주의 시대의 드라마 작품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작가가 평생 자유를 추구한 고전주의자라는 점이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큰 차이 이외에 이 글은 실제 번역비평을 통하여 세계문학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북한에서 나온 세 종의 번역본의 서문에서는 북한의 문학 강령과 이념이 강조되고 있지만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을 할 때 독자는 작품을 독자적으로 다르게 읽을 가능성이 생겨남을 확인하였다. 실제 완역을 한 북한의 두 번역본과 어린이용으로 개작한 소설의 경우, 민중봉기보다는 가정과 나라를 강조

하며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쉴러의 사상이 큰 변형이나 차이 없이 옮겨지고 있다. 공통의 세계문학 번역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은 세계문학 작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고전문학과 세계문학의 보편성이 지니는 중요한 미래적, 소통적 의미가 담겨 있다.

■ 접수: 2023년 5월 8일 / 심사: 2023년 5월 30일 / 게재 확장: 2023년 6월 7일

【참고문헌】

- 박진영, 『번안과 번역의 시대』, 서울: 소명, 2011.
- 실러, 프리드리히 저, 공익현 역, 『(프리드리히 실러) 군도』,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총동맹, 1963.
- 실러, 프리드리히 저, 강학태 역, 『윌헬름 텔』, 평양: 문예출판사, 1984.
- 실러, 프리드리히 저, 이재영 역, 『빌헬름 텔』, 서울: 을유문화사, 2009.
- 이충섭, 『한국의 독어독문학 관계 번역문헌 정보』, 서울: 한국문화사, 1990.
- 김경식, 「북한의 독문학 연구」 『괴테연구』 제20호, 2007, 115~137쪽.
- 김태섭,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문학연구(2017. 9. 1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주제 111, 제68권 제1호, 2022.
- 신수송, 윤미애, 최윤영, 최성만, 「문화수용과 문화전이로서의 번역: 괴테, 카프카,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어 번역 연구」 『독일언어문학』, 제18호, 2002, 259~299쪽.
- 실러, 프리드리히 저, 홍석근·공익현 역, 「윌헬름 텔」 『실러희곡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 실러, 프리드리히 저, 공익현·조맹연 역, 「윌헬름 텔」 『세계문학선집』, 평양: 문예출판사, 1986.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운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1, 361~363쪽.
- 이경희, 「미적 인간과 미적 국가의 문학적 구현. 실러의 드라마 『빌헬름 텔』을 중심으로」 『외국문학』 제51호, 2013, 181~202쪽.
- 이은정, 「세계문학과 문학적 세계 1」 『세계문학』 제55집, 2016, 5-38쪽.
- 이재영, 「자유를 위한 저항과 혁명, 그리고 폭력」 『빌헬름 텔』 역자 후기, 서울: 을유문화사, 2009, 205~225쪽.

Translation of German literature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Schiller's *Wilhelm Tell*

Choi, Y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reception of German literature in North Korea through the translation of world literature, specifically Friedrich Schiller's *Wilhelm Tell*. This work has been translated four tim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32 times in South Korea since liberation, and at least three times in North Korea, making it suitable for comparative analysis both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Concretely, I first examined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world literature, foreign literature, and translation, and then examined how Schiller and Schillerian literature are evaluated in North and South Korea. Next, I reviewed the three North Korean translations of the work in detail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Korean, North Korean translations and the German original. I also analyzed the gaps between literary and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North Korean translations. In fact, while North Korea's literary theories and the prefaces and postfaces of the translations reflecting these theories show a strong political, ideological, and dogmatic color, the actual translations of the works are relatively weak in these colors, especially when they are fully translated.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general and universal values of 'world literature' and 'classical literature', we can see that there is a gap or crack between translation theory and actual transla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 possibilit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communicate and dialog beyond their respective systems through a common reading experience of 'world literature'.

Keywords: *Wilhelm Tell*, translation in North Korea, translation critic, world literature

최윤영 (Choi, Yun-Young)

서울대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독일의 사실주의 문학, 이민 문학, 소수자 문학, 문화이론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카프카, 유대인 몸』(2012),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2016), 『엑스포니, 다와다 요코의 글쓰기』(2020) 등이 있다.